1. 대학시절

IMF 사태 무렵에 대학을 입학하였고 대학 OT를 취소할 정도로 사회, 경제적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취업률도 급락해서 어려움에 처한 선배들에 대한 얘기들을 접하며 학교 생활을 하다보니 자연스레 1학년때부터 향후 진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변리사 시험 준비를 목표로 하여 물리학 전공을 선택하였고 2학년이 되어 전공 공부를 하면서 특수업종 위주의 변리사보다 좀 더 범용적인 일을 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었고 고민 끝에 세무사자격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영학 부전공을 선택하여 시험 연관 과목을 수강하고 시험공부와 시험응시를 위해 2회, 학비마련을 위해 2회 휴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소 휴학 기간이 길기는 했지만 그동안 시험과 진로에 대해 차분하고 진중하게 고민하고 준비하였기 때문에 전공생 중 석차 1등으로 졸업하고 같은 해 세무사 시험 2차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직업을 향해 한 발 내딛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과 전공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거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타전공생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이 컸지만 공부방향을 설정하고 학교에서 개설되는 재무, 회계 과목들을 열심히 수강한 것의 도움이 컸습니다.

대학시절 처음 마음에 두었던 변리사라는 직업, 막상 시험준비를 하게 된 직업은 세무사였다는 것이 결국은 변호사라는 길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의 큰 윤곽을 발견하였고 결혼과 육아를 경험하면서 머리 속에 확고하고 자리잡고 있습니다.

1. 세무법인에서의 근무

기업들의 회계, 세무, 재무 전반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에 대한 질의응답 자문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연간 법인과 개인기업의 장부 및 결산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사가 작성한 결산서를 기초로 세무조정 작업을 거쳐서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문제가 될만한 쟁점들에 대한 법리 및 증빙 준비 컨설팅과 기업의 세무조사 기간동안 회사를 대리하여 조사과정에서 세무조사 공무원을 대응하는 일 또한 수행하였습니다.

경험이 누적되어 가면서 제조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 각종 업종들에 대한 일반적인 또 특수한 회계, 세무 주요 이슈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기업과 달리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회사의 자금 이용이 자유롭지 못하여 횡령, 배임과 같은 불법 행위로 직결될 수 있는 점이 중요하였고 개인기업은 대표자의 사업 운영 이외에 개인 재산세제(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와 가족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등 개인 일신과 관련되어 있는 재무 상황에 관한 총체적인 판단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무 판단에서 더 나아가 각종 권리관계, 인사,노사 등 기업의 비재무적 업무를 수행하고 그 가운데서 발생하는 소송업무까지 이어서 맡을 수 있다면 각각의 사안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지어 최적의 결론을 맺츨 수 있을 것이며 회사의 입장에서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신속해지고 관련비용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불복업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1. 일반기업에서의 근무

아파트분양 시행사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수익이 발생하기이전의 사업초반부에 PF라는 대규모 대출금융을 일으켜 자금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 금원을 당사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들의 대출금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 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수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한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알고도 묵인해야 했던 점, 오히려 회사에 유리하게끔 장부를 기재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 속의 충돌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직원들에게 분양계약 강요를 통해 중도금대출을 받아 회사가 유용했고 결국 회사는 부도처리되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직원들 스스로가 져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 또한 전세금이 가압류되었고 임금체불까지 겹쳐서 퇴사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회사 내에 법률전문가가 없었던 관계로 외부 자문을 받아 임원진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법 그대로의 힘보다 학연, 지연의 영향을 믿고 법의 방향과 다르게 의사결정을 해왔던 점들이 회사의 앞길을 좌우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직원임과 동시에 법률가였다면 회사의 결정 방향에 조금이라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 임원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많이 했습니다. 회사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깊이 따져보지 않고 회사의 말만을 믿고 따른 결과로 인해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월급이 주는 안일함에 빠져있지 않았나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다행이 체불된 월급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의 진정으로 퇴사 후에 빠진 금액 없이 지급받게 되었고 법의 노동자 보호 역할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출산과 육아